

목 5월 16일

19장 본 장은 18장 빌닷의 2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친 논쟁을 벌이지 않고,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20장 본 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근거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이 받을 분깃에 대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 1) 악인은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고,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
- 2) 풍족할 때에는 즐겁고, 재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
- 3)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악인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

21장 본 장은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한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22장 본 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본장에서 엘리바스가 열거하고 있는 욥의 죄악상들은 사실과 다른 엘리바스의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하고 ()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고 권면합니다.

화 5월 17일

23장 엘리바스의 변론에 따른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두렵다고 고백하나요? (15-17절)

24장 계속해서 욥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욥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항의하며, 악인의 평안함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는 악인의 마지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써 보세요

25장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을 짧게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6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26장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합니다. 욥은 1-4절에서 빌닷의 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힘없고 기력 없고 지혜 없는 자신 욥을
1) 잘 가르쳐 주고 있다.
2) 도움이 안 되는 가르침과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

수 5월 18일

27장 본 장은, 소발의 차례에서 더 이상 소발이 나서지 않고 침묵하자,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욥은 죽기 전까지 결코 무엇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나요?

28장 27-31장까지 계속해서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본 장에서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욥이, 결론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29장 욥은 본 장에서,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축복된 생활이 누구의 보호 속에 이뤄졌던 것임을 회상하고 있나요?

30장 본 장에서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지난날과는 대조적으로 육체적 고통,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에 대해 탄식합니다. 욥이 지난날에 연주했던 수금과 피리는 현재 무엇이 되었다고 하나요?

목 5월 19일

31장 욥은 본 장에서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을 아시기를 바라노라.”고 고백합니다.

32장 본 장에서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욥에게:

2) 세 친구에게:

33장 본 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으로,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34장 본 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으로, 엘리후는 욥의 탄식을 근거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했다고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대답이 지혜롭지 못하고 악인과 같아서, 욥이 끝까지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나요?

금 5월 20일

35장 본 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으로, 욥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욥의 교만과 회개치 않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대답들을 들으며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36장-37장 본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36:1-23)와 하나님의 주권(36:24-37:24)을 강조합니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구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 보세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이 지극히 크사,
()나 ()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38장 마침내 사람들의 변론과 논쟁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와 우주의 통치에 대한 질문으로 욥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4절에서 41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토 5월 21일

39장 본 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의 본능과 습성에 대해, 타조, 말, 매와 독수리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런 언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초월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뛰어갈 때에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알 정도로 잘 뛰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40장 본 장에서 하나님은, 인간 욥이 왜소하고 무능력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이라고 표현하는 짐승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41장 본 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에 대해 알려주는 동물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42장 본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 앞에 욥이 회개하며,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그리고 욥의 축복에 대해 기록합니다. 욥은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 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